문제는 '읽는 것'이라 전해라

DOI: 10.3938/PhiT.25.029

한 성 봉

길목을 노리고 있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레지스탕스나 지리산 빨치산 혹은 노루목에 서있는 사냥꾼처럼. 정규군보다 인원 장비가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하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가성비 를 높여야 한다. 효율적으로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비롯한 주변의 상황에 눈 밝아야 한 다. 토끼가 세수하러 오는 웅덩이를 알아야 하고 노루가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동아시아 출판사는 작은 출판사다. 15년이나 되었다지만 항 상 5~8명이 움직이고 매출도 겨우 먹고살 만하기만 한 출판사 다. 출판은 약간 예외적이라 해도, 모든 산업은 규모의 경제이 므로, 항상 힘들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작가가 책을 낼 리가 없고 좋은 외서를 확보할 자금도 넉넉지 않으니, 살아남으려면 좋은 눈썰미로 성공할 작가를 미리 찾아다니거나, 쓰레기 더미 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건져내야 한다. 그러나 말이 좋을 뿐이 지 이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이던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일 년에 한두 번 쓰는 일간 지 칼럼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글 쓰는 일을 삼가고 있다. 뭐, 재주 있고 없고를 떠나 평생을 글을 읽고 쓰는 공부를 했으니 물리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원고청탁이 출판과 책에 대한 것이 므로 책과 출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 책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원고나 인터뷰가 가장 곤혹스럽다. 과학 책 전문 출판사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과 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퍼내는 종수에 비해 성과가 좋다는 평가 때문에, 이른바 '영업비밀' 때문에 감추느냐는 오해를 가끔 받 기도 한다. 그래서 더 곤혹스럽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출판인이 생각하는 과학 책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 놓겠다. 거절할 수 없는 분이 청탁을 하셨기도 하지만, 요즘 출판계에 '과학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하니 시기

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량을 주셨기 때문이다.

5~60년 전부터 과학책을 어렵게 내온 출판사들의 책을 읽었고, 출판을 시작하면서부터 멘토인 좋은 출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도 존경하는 과학책 출판사들이 많은데, 동아시아 출판사 주 제에 영업비밀 따위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이 글이 과학책을 내 는 선후배 출판인들과 생각과 영감을 주고받아, 형식과 내용 질과 양의 모든 면에서 과학 출판이 더욱 풍부해진다면, 다소 과격하게 쓰는 오늘 이 글 때문에 받는 질책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인문 전공 편집자 VS 이과 출신 편집자

북 섹션 담당 기자들이 하나같이 요즘 과학책이 너무 많아 졌다 한다. 매우 고무적인 표정으로. 맞다. 면적, 인구, 경제규 모에 비해 세계적 출판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학출판이 참으로 보잘 것 없었으니, 고무적인 일이 분명 맞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2004~5년도의 기시 감이다. 2000년대 초반에도 과학책 열풍이 있었다. 번역서 일 색이었던 교양과학도서 시장은 최재천 교수와 더불어, 정재승, 이은희 등의 젊은 스타급 저술가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격 히 커졌고 많은 출판사들이 과학도서에 뛰어 들었다. 그래서 한때 좋은 과학 도서들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삼사년 후 이내 시들해졌다. 화려함에 비해 시장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아 니나 다들까 뛰어들었던 많은 출판사들이 철수했다. 그래서인 지 요즘 상황에 대해 별 감흥이 없다.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과학책 독자를 늘리고 시장도 커지겠지만, 산업적으 로 부풀었던 이 기세는 곧 꺼질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의문은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교양과학 책을 떠받치는 기획, 편집자가 상응할 만큼 풍부한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조금 의아하겠지만, 책은 저자 외에도 출판사의 기획 편집자 가 담당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하 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있는 편집자는 원고 혹은 저자의 콘텐 츠를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 장악할 정도가 되어야 독자의 입맛 에 맞게 조리하거나 포장할 수 있다. 또 기획자 편집자는 저자와 책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저자약력

한성봉 대표는 현재 동아시아출판사 대표로 약 17년 동안 230종의 책을 펴냈다.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2009~2011)을 역임하였고 2007년 문화 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더욱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책이 나온다.

그런데 주자학 통치 오백년 이래 인문의 전통 아래 놓여 있던 한국사회처럼, 우리 출판 산업 인력 역시 인문 사회계 출신에 비해 자연계 이공계 출신은 거의 안보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각 출판사에서는 좋은 과학 원고를 감식하고 높은 수준의 입기와 편집이 가능한 인재를 찾으려 혈안이 된다. 심지어 좋은 과학책을 많이 내는 모 출판사에서는 이공계 출신 직원이 거의 대다수라 자랑을 할 정도이다.

당연한 자랑이다. 그럼에도 뛰어난 과학책 편집자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출판계에 이공계 출신이 많이 진입하고 있고 출판사들이 자연과학과 이공계 담론에 실력을 갖춘 기획 편집자를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데,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이공계 자연계의 지식은 필수일 뿐, 자연과학 담론을 ‘문화 현상’으로서 생산하는 것은 문 이과를 구분하는 층위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지식의 층위라는 점이다. 문 이과를 구분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분과적이며 통합적이지 못한 것이다. 과학책을 내는 종사자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과학 문화를 전달하는데 유리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치이다.

더욱이 출판의 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 생각은 더욱 절실하다. 전통적 출판은 아카이브와 시대와 소통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의 혁명적 진화는 더 이상 책에게 아카이브를 의무 짓지 않는다. 오히려 아카이브는 e-콘텐츠로 충분하며 책은 시대와 사회의 ‘소통’이라는 기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따라서 과학 대중서를 만든다는 것은, 과학 콘텐츠가 ‘지금 여기에’ 어떤 위치이고 또 어떤 책을 펴내야 하며,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또는 대중과 가장 즐겁게 소통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을 통합적인 교양 혹은 넓은 의미의 인문서로 바라보고 계통을 지을 수 있는 에디터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 필자 VS 번역서

지난해 말, 언론사에서 해마다 뽑는 ‘올해의 책’에서 문화일보는 국내서 10권을 뽑아서 화제가 되었다. 즉 올해의 책에 번역서를 배제하고 국내서만 뽑으니, 더 많은 국내 필자의 역할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양날의 칼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무엇이 대수이라. 국내서건 번역서건 수준 높고 좋은 책을 우리 독자들이 잘 향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역사가 일천하고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과학 책의 경우는 필연이 아니겠는가?

과학 책의 경우, 어쩌면 근대 이후의 우리 과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유구한 과학의 전통 속에서 꽃 핀 서구와 달리 우리

는 산업과 경제를 위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응용하는데 골몰했다.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한 인재들의 이공계 진입은 오로지 경제적 산출과 성과로만 이어졌고 과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성찰을 뒷전이었다. 따라서 이공계 도서는 실용서에 닮아 있었고, 교양과 지성으로서 읽고 생각하고 다시 담론을 생산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다.

현대 출판 초기부터 우리의 과학 책은 번역도서 일색이었다. 이 상황은 여전하고 과학 책의 양적 질적 풍요로움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가 생산하는 그 많은 과학 책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가 출판계의 고민이다. 과학이라 통치고 있지만, 그 장르도 많고 또 책으로서 인기 있고 없음이 나뉘기도 하고 일종의 트렌드 같은 유행이나 흐름도 있다.

따라서 이를 소개하는 출판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선택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학책을 번역할 번역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판에 관련된 훌륭한 직업적 번역가들이 꽤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과학 책을 번역할 수 있는 분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물리 화학 생물 우주 등의 전문적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다. 몇 분의 뛰어난 번역가들에 모든 일이 물리기 때문에, 심지어 몇몇 번역가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과학 책에도 트렌드가 있고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번역가를 동원하고 전문가에게 감수를 맡기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히 감수를 한다 해도 번역문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오역이나 난삽한 번역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그래서 과학 책 출판사들은 번역을 마친 책을 재번역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영세한 출판계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학계나 단체들이 과감하게 나설 일이다. 우선 대학의 교원에게 책 번역에 대한 성과를 저술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을 가진 좋은 번역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창의재단’이나 ‘아태이론물리센터’같은 곳에서 보다 체계적인 번역가 육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계획으로.

당분간 번역 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서구가 생산한 우수한 책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 과학계에 대중적 글쓰기에 능한 과학 저술가가 손꼽을 정도이고, 출판사로서는 그 분들을 몇 년씩 기다릴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번역 책에 매달리겠지만 숨은 보석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으므로, 서구에서부터 검증된 책을 구하려 할 것이다. 과학 책이 활황이라니, 많은 출판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럴수록 한국 출판계는 과학 책의 호갱이 될 것이다. 이미 과학책의 한국어 판권은 시장 대비 적정선을 훨씬 뛰어넘었다. 결국 스스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몇 년 지나면 대다수가 철수할 것이다.

과학 출판이 붐인 것은 매우 좋다. 그렇지만 인프라가 갖춰지

지 않은 붉은 붓을 쉽게 꺼진다. 과학 책을 내겠다면 조금 긴 시야를 갖고, 국내 필자나 번역서 공통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숨은 보석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저술가의 발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쓰고 말해야 하는지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요즘 과학 저술을 하려는 젊은 필자들이 꽤 많다. 지금은 조금 미숙할지라도 출판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 분명 그들 가운데 보석을 찾고, 더 많은 과학저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일본 과학도서 시장처럼 50:50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외서의 판권 가격도 일본처럼 내려갈 수 있고, 더 많은 양질의 번역 책을 안정적으로 독자에게 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황교익 VS 집밥 백선생

얼마 전 음식 사업가 백종원 씨와 평론가인 황교익 씨 사이에 작은 화제가 있었다. 아니 두 사람보다 세상의 호사자들이 화제를 만들고 싶어 했다. 어쩌면 많은 대중들은 황교익이 이른바 먹거리 장사를 하는 백종원 씨를 근엄하게 질타하거나, 백종원 씨가 대중음식의 입장에서 거칠게 항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쿨하게 자기 스텐스를 지켰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시사하는 바가 컸다. 슬쩍 한국의 출판계에 대입해 봤다. 여전히 좋은 책 : 쓰레기 같은 책, 팔리는 책 : 안 팔리는 책 등의 이항 대립구조를 좋아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책만으로 출판문화의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과 ‘안 팔리는 좋은 책은 있지만 잘 팔리는 나쁜 책은 없다’라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표어들이 가치를 지니는 한국의 도서 시장.

이 구조에서 과학 책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출판인의 입장이므로, 무게 중심이 기술 수밖에 없다. 즉 ‘대중의 과학화’건 ‘과학의 대중화’건 과학책이 독자에게 읽혀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면 과학을 모르는 독자에게도 과학 책을 알기 쉽게 전해야 한다는. 그러나 선부론 오해는 하지 마시라.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었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 책의 숙명이니까. 모든 책이 마찬가지겠지만, 과학 책 역시 타겟 독자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 혹은 차선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 노력이 독자와 책 사이에 긴장처럼 위치해야 한다. 그래야 ‘책이 쓸데없이 어렵다’ 혹은 ‘독자 수준이 너무 낮다’ 등의 유치한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도 소수의 수준 높은 과학 독자를 위한 책도 꾸준히 발간해야 한다. 어쩌면 이 도서들이 우리 과학책 시장의 수준과

품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는 진보한다. 그러나 삼가야 할 것도 있다. 과학 책의 넓은 분야와 범위에서 정말 소수에 게만 필요한 특성의 책을 냈다면, 시장을 탓해서는 안 된다. 또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격려받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책에 정부 지원이 없다고 푸념하거나 독자의 수준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것은 훌륭한 문화적 행위이고, 가치 있는 행위일 뿐이다.

이 글의 주지는 과학 책을 대중에게 ‘소통’하려는 출판인의 한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과학책의 인문화’ ‘과학책의 사회화’로 말하고 싶다. ‘지금 여기’에서 과학책의 소통을 꾀한다면, 위에서 말한 알기 쉽게 전한다는 일반론적인 것을 떠나 대중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훈련되었는지를 잘 알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들은 오랫동안 인문 사회학적 전통에서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지금 과학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 중에는 이공계 출신보다도 인문 사회 출신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이라는 장르로 스스로의 범위를 넓혀오면서 더 뛰어난 교양인으로, 지식인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시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잘 팔리는 과학 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 그것은 어떤 책인가? 분명 과학 책인데 뭔가 인문적이지 않은가? 뭔가 사회적이지 않은가? 그 중에 꽤 어려운 책도 있는데, 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는 반증한다. 과학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동시에 갈등. 역으로 이것이 과학 책의 갈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과학책이 보편적인 지성으로 위치 매김할 것이다.

명확하게 과학 책은 ‘읽는 행위’를 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따라서 이 읽는 행위가 즐거우면 과학이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란 지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쉽고 재미있다는 충위를 넘어서, 좀 어렵더라도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지적 쾌락을 요구한다. 그것은 과학이 실험실에 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삶과 세상, 인류와 역사 모두에 존재하고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어둠과 빛, 시간과 공간 등 우리가 밝혀야 할 모든 것은 과학적인 프로세스이며, 인문 사회학적으로 인류가 끊임없이 욕망해온 진보 역시 과학의 보편성에 기반한 것임을 재밌게 읽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출판인으로서 책의 목적은 ‘소통’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력은 자다가 좋은 꿈을 꾸듯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집중에서 발현된다. 또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생각한 만큼 열리므로, 좋은 과학 도서를 만든다는 것은 인문 사회 등의 다양한 지식의 포괄적 소통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과학 편집인 출판인은 이러한 자세로 무장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것이, 과학이 진정한 의미의 인문 사회학임을 알리는 일이다. 아니 이제라도 인문 사회학의 중심은 자연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